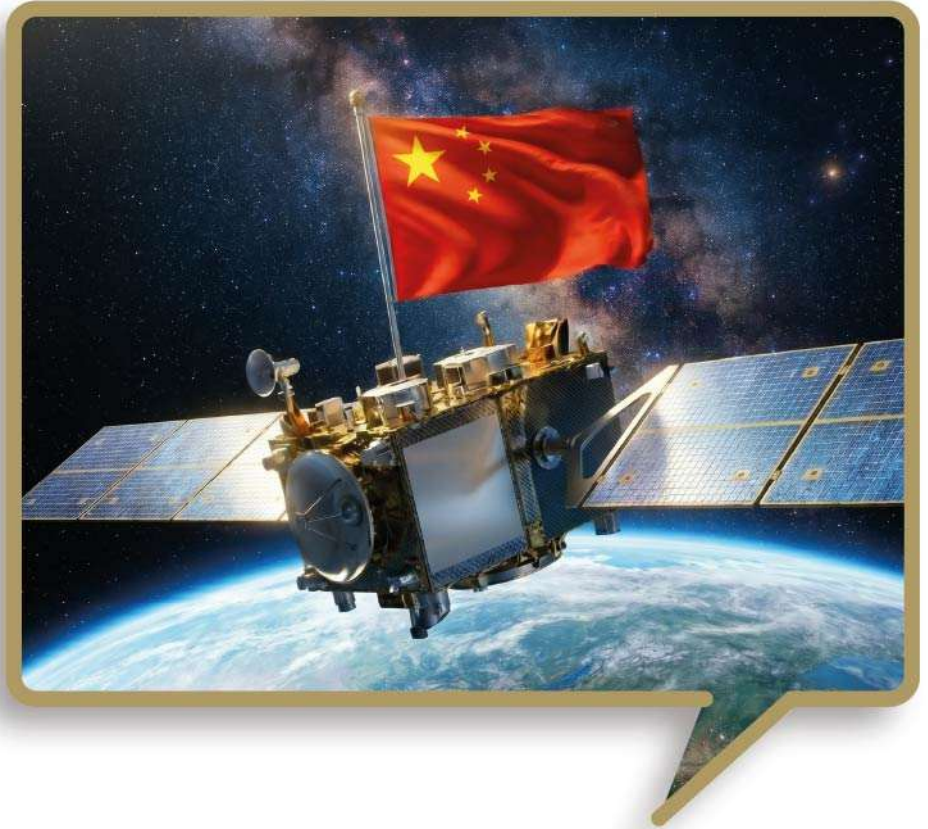


중국 하반기 전망



미·중 패권전쟁, 'AI반도체' → '우주항공' 확장

중국전략 담당 성연주
T.02)2004-9871
seung.yeon-ju@shinyoung.com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은 국가 주도의 우주 탐사(달/화성) 등 장기 로드맵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멀게 느껴졌으나, 차세대 기술밸리의 핵심 노선인 6G '저궤도 위성(LEO)' 산업이 미·중 패권전쟁으로 부각. 특히 미국 SpaceX IPO 실시(6월 12일)와 함께 실질적인 미국 정부의 우주항공 산업의 확고한 'First mover'로서의 자리매김은 'Fast follower'로서의 중국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 6월부터 중국 정부의 저궤도 위성 운반로켓 발사가 빨라지면서 실질적인 '저궤도 위성' 산업 도약의 신호탄이라는 판단. 중국 정부는 '저궤도 위성' 선점 및 재사용 로켓 기술 개발에 투자 확대를 발표하면서 관련 테마주 주목. 특히 중국 '과창관' 지수에 우주항공 기업 IPO를 독려하기 위한 상장조건 제도를 발표하면서 관련 ETF 주목



중국 '우주굴기', 저궤도 위성(LEO) 'Fast follower' 본격화.....	3
I. 미·중 패권전쟁, 'AI반도체' → '우주항공' 확장.....	4
II. 중국 '우주굴기' 본격화, 단 상당한 시간 걸릴 듯.....	8
III. 중국판 SpaceX, 민영기업 LandSpace 주목.....	12
IV. 중국 '과창판50'지수 ETF 주목.....	13

미·중 패권전쟁, 'AI반도체' → '우주항공' 확장

분석의 기본 가정

- 중국 AI반도체 국산화율 UP
- 중국 우주항공, 특히 저궤도 위성 투자 확대

중국 '우주굴기', 저궤도 위성(LEO) 'Fast follower'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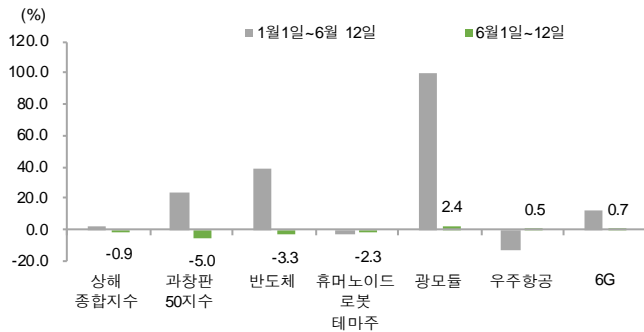
중국 증시에서
'우주항공/6G' 업종
상대적 강세

상반기 중국 증시에서 업종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확실히 반도체 지수 상승폭이 컸으나, 6월부터 '우주항공/6G' 업종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연초부터 중국 '저궤도 위성(LEO)' 발사 신청 및 우주항공 중점산업으로의 지정 등에 따른 모멘텀은 긍정적이었으나, 글로벌 지정학 이슈 및 반도체로의 쏠림 현상으로 그 외 업종 수익률은 저조했다. 하지만 미국 SpaceX IPO 실시(6월 12일)와 함께 실질적인 미국 정부의 우주항공 산업의 확고한 'First mover'로서의 자리매김은 'Fast follower'로서의 중국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다. 6월부터 중국 정부의 저궤도 위성 운반로켓 발사가 빨라지면서 실질적인 '저궤도 위성' 산업의 신호탄이라는 판단이다.

미·중 패권전쟁은
'우주항공',
그중 저궤도 위성
선점 본격화 예상

사실상 미·중 패권전쟁의 시발점은 '통신(안보)'이다. 중국 AI 반도체 국산화율 가속화로 이제는 '우주항공', 그중 '저궤도 위성' 선점을 둘러싼 양국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주식의 투자자 입장에서 '저궤도 위성' 등 관련 기업에 직접적인 투자는 쉽지 않다. 중국 중점기업들은(LandSpace, CAS Space) 과창판 IPO 접수한 상황이나, IPO 실시 및 실제 지수 편입(후강통)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개별 기업투자 보다는 '과창판50'지수 ETF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표 1. 6월들어 중국 본토 증시에서 '우주항공/6G' 업종 수익률 상대적 강세



자료 : Wind,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1. 미·중 패권전쟁, 'AI반도체' → '우주항공' 확장

(1) 중국 AI반도체 국산화율 UP - 미·중 관세전쟁 의미 희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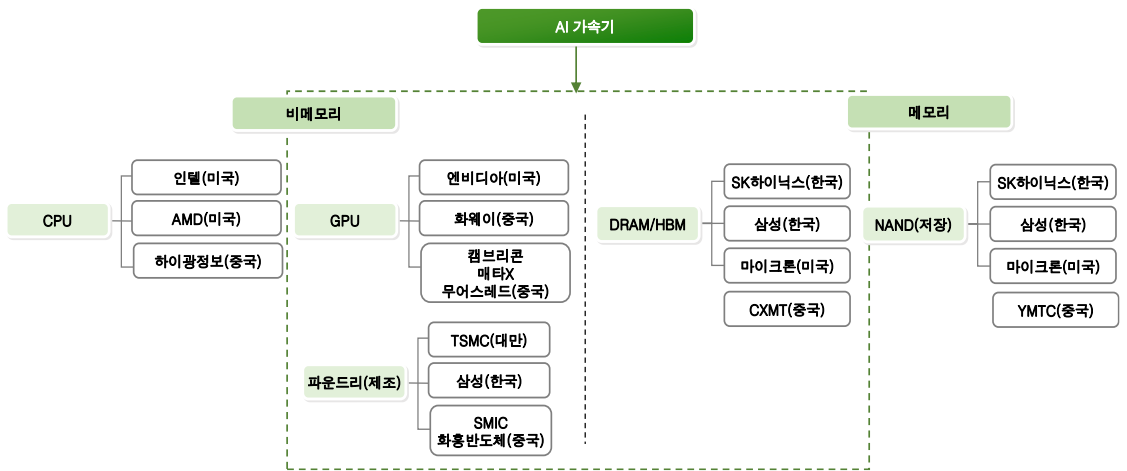
미·중 관세전쟁 의미
희석됨

지난 5월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보면, 미·중 관세협상 의미가 점차 희석되고 있음을 느꼈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담의 표면 의제를 5B(보잉 항공기, 쇠고기, 대두, 무역위원회 설치, 투자위원회 설치)와 3T(대만 무기 판매 중단, 관세 인하, 반도체 통제 완화)의 교환으로 봤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여줄 경제 성과에 중점을 뒀고, 중국은 실질적인 통제를 완화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일부 무역/경제 부분의 협상 결과가 나왔으나 실제로 의미 있는 성과는 없었다.

11월 미·중 최종 관세협상
예정되어 있으나,
핵심 의제
해결될 가능성 낮음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엔비디아 H200 수출을 승인했으나 중국은 신중한 상황이다(매출 25%환원 조건). 중국 정부는 안다. 3T 중에서 중국이 진짜 원하는 핵심 2가지(대만, 반도체 [EUV노광장비, CUDA])는 미국이 절대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안다. 그래서 중국은 가장 원하는 핵심 2가지를 자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미·중 협상에서의 진짜 레버리지는 중국이 우세하다(희토류). 따라서 오는 11월 미·중 최종 관세협상에서 일부 관세 인하는 기대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쉽지 않을 것이고, 양국은 재차 시간을 끌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양국의 패권전쟁은 이제 AI 반도체에서 '통신(안보)'에 좀 더 치중된 '우주항공' 분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2. 중국 AI반도체 국산화율 UP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AI반도체 국산화율
가속화

중국의 AI반도체 국산화 전략 속도는 매우 빠르다. 미국의 반도체 통제가 오히려 중국의 AI 자급률을 높였다. 지난 5월 25일 화웨이 반도체사업부 총재 허팅보는 IEEE국제전기회로시스템연구회에서 '타우(τ)의 법칙'을 발표했다. 핵심은 기존의 '무어의 법칙'과 달리 EUV노광장비 없이 최첨단 칩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은 미국 제재로 5나노 이하의 반도체 칩을 만들 때 필요한 ASML(네덜란드 기업)의 EUV장비를 수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고성능 반도체칩 제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웨이가 EUV 없이 구형 공정에 쓰이는 DUV(심자외선) 장비로 패턴을 여러 번 겹쳐(적층) 새기는 방식(다중노광)에 로직폴딩 기술을 조합하여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을 출시 예정인
화웨이 신기린칩 성능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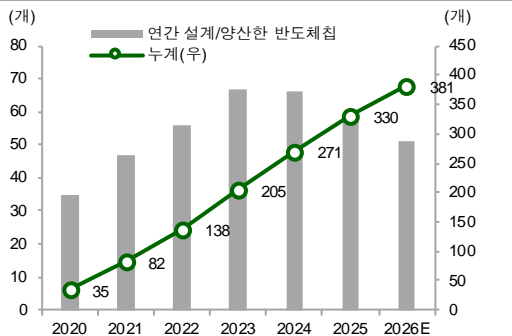
화웨이의 '신기린칩(트랜지스터 밀도 238 MTr/mm²)'은 가을에 출시할 예정이며, 성능은 TSMC 3나노 공정 하한선 정도까지 올라왔다. 물론 성능만 만족했지 그의 공정에서의 문제점(전력, 발열 등)은 시간이 필요하다. 화웨이는 1.4나노 공정 목표일정(2031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앞당겼다(TSMC 2028년 하반기, 삼성전자 2029년). 그리고 이번 발표가 놀라운 점은 화웨이는 단순히 이론상의 법칙을 언급한 것이 아닌, 지난 6년간 '타우의 법칙'에 근거하여 381종 반도체 칩을 이미 양산했다는 것이다. 이번 화웨이 발표 당일(5월 25일)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SMIC(688981.SH, 0981.HK)은 본토 증시에서 장중 상한가(20%)에 도달했다.

도표 3. 화웨이 '타우(τ)의 법칙' 비교

구분	무어의 법칙(전통)	타우(τ)의 법칙(화웨이)
핵심목표	반도체소자(트랜지스터) 수를 늘려 개별소자를 더 작게 만들	신호 전달 지연 시간(τ)을 압축
핵심기술	기하학적 미세화(공정 축소)	'로직폴딩(LogicFolding)'이라는 설계·적층(3D) 방식
핵심방식	EUV등 고해상도 노광	DUV 등 기존장비로도 가능(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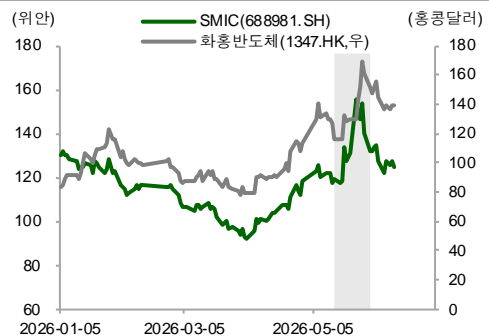
자료: 신화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화웨이는 지난 6년간 '타우(τ)의 법칙'으로 381종 반도체칩 양산



자료: 화웨이,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지난 5월 25일 중국 파운드리 기업 주가 상승폭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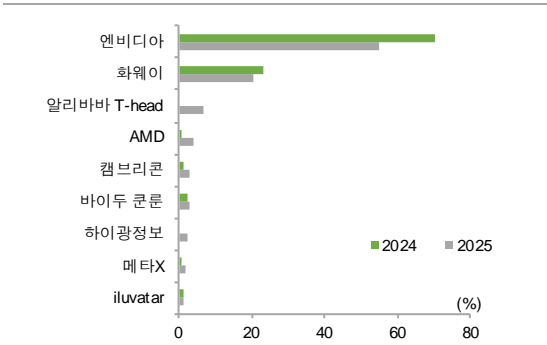


자료: Wind,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범용 GPU·추론용 AI 칩 및 HBM 개발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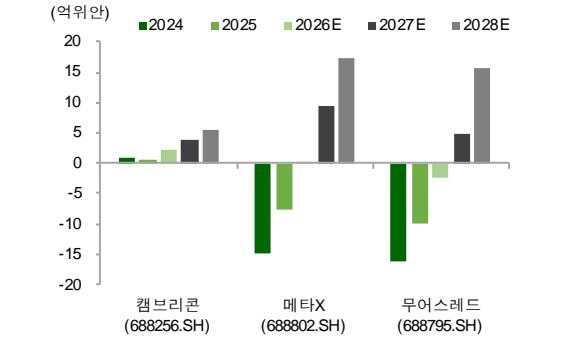
또한 중국은 범용 GPU·추론용 AI 칩 및 HBM 개발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GPU 3대장인 캄브리콘(688256.SH), 메타X(688802.SH), 무어스레드(688795.SH) 및 DRAM/ NAND 핵심 기업인 창신메모리(CXMT), 양쯔메모리(YMTC) 시장 점유율 및 실적 상승폭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연구기관인 IDC 데이터에 따르면 1년 사이에 중국 GPU 시장 점유율 순위 및 수치 변동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은 -15%p, 캄브리콘/메타X는 각각 +1.9%p, +0.8%p, 그리고 중국 DRAM 기업인 CXMT는 HBM3(4세대) 시제품을 출시한 상황이고 현재 양산 승인을 위한 검증 단계로 알려져 있다. 2027년에는 12단 HBM3E(5세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CXMT는 지난 5월 과창판 IPO를 승인받아 4분기 상장 예정이다.

도표 6. AI가속기 시장 점유율(GPU/CPU/ASIC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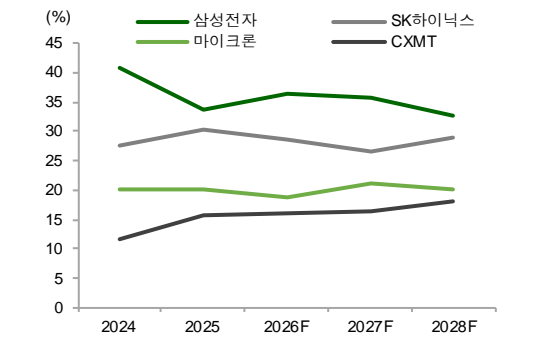
자료 : IDC,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중국 GPU 3대장 캄브리콘/메타X/무어스레드 순이익 예상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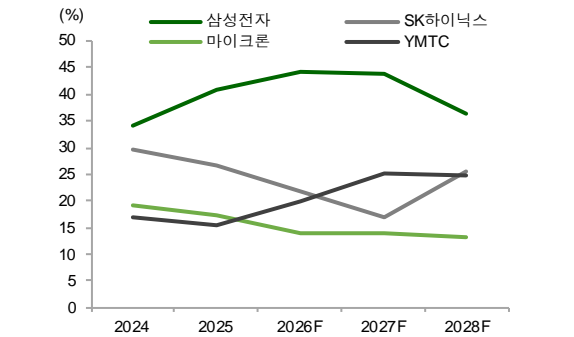
자료 : Wind,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8. DRAM 글로벌 점유율 예상치



자료 : 노무라,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9. NAND 글로벌 점유율 예상치



자료 : 노무라,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미·중 패권전쟁 핵심은 '통신(안보)- 저궤도 위성 선점 본격화

미·중 관세전쟁의 시발점
화웨이'5G' 통신칩 선점

2018년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미·중 관세전쟁의 시발점은 사실상 화웨이 '5G' 통신칩 선점이다. 그동안 미국의 밥그릇이던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분야를 중국이 한발 앞서 나가면서 미국의 중국 통신/안보 분야에 대한 제재가 시작됐다. 중국이 5G 시장 선점이 가능했던 이유는 2010년 이후 미국은 팹리스 시장이 정체기(팹리스-파운드리 시장간의 선순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에 있었고, 중국은 국가 주도의 전폭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빠른 반도체 기술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본보기로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ZTE(중흥통신)를 첫 제재 기업으로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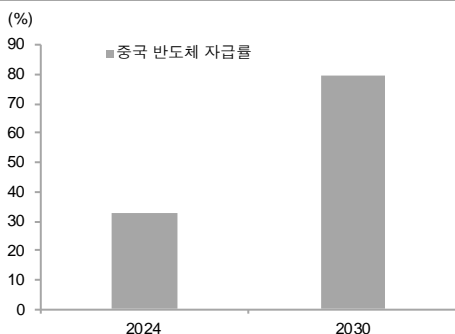
미·중 패권전쟁
6G '저궤도 위성'으로 확장

2025년 기준으로 중국 반도체 국산화율은 33%이다. 중국 13개 반도체 핵심 기업들의 2030년 국산화율 목표치는 80%이다. 쉽지 않겠지만 화웨이, CXMT, SMIC 등 중국 선도기업들의 기술력/이익 추정치를 감안하면 목표치 달성은 가능하다는 시장의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미·중 패권전쟁은 기존 'AI 반도체'에서 좀더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차세대 기술랠리의 핵심 노선인 6G '저궤도 위성'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크라이나/이란 등 전쟁에서의 통신 장비의 참여한 신경전, 6G와 위성통신망의 연결 등 우주항공 분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미·중 패권전쟁의 핵심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6년 중국 '우주굴기'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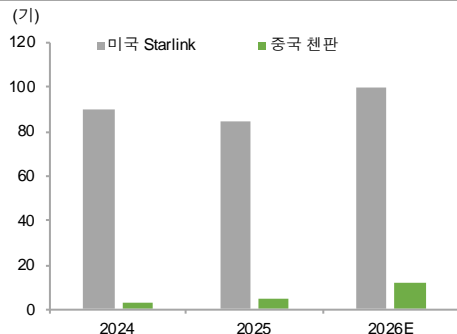
중국 정부는 미국 SpaceX IPO(6월 12일)를 앞두고 연초부터 '저궤도 위성' 발사 신청 및 운반 로켓 발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3월 전인대에서 '우주항공/6G'를 처음으로 신품질생산력 핵심 산업으로 발표했으며, 6월 1일/4일/5일 연달아 '천범성좌(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프로젝트'를 위한 운반로켓을 발사했다. 즉 2026년 중국 '우주굴기'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판단이다.

도표 10.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자급률 목표치 80%(2030년)



자료 : IBS,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1. 2026년 중국 '저궤도 위성' 로켓 발사 속도 가속화



자료 : 장강경제연구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II. 중국 '우주굴기' 본격화, 단 상당한 시간 걸릴 듯

(1) 중국 '우주항공' 글로벌 2위 → 국가 중점산업으로 격상

중국 '우주항공' 글로벌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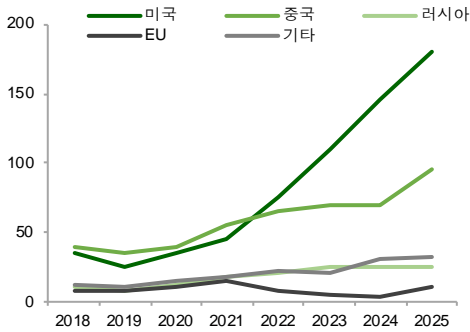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 분야의 G2는 미국과 중국이다. 우주항공 산업 6대 핵심지표(발사횟수, 위성수, 우주정거장, 심우주 탐사, 상업우주, 산업별 류체인)에서 중국은 모두 글로벌 2위를 기록했다. 지난 2025년 9월 미국 상업용우주비행연맹(CSF)는 향후 5~10년 안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우주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3월 전인대 발표한 5개년 계획의 6대 미래산업과 4대 신흥산업에서 처음으로 6G/저궤도 위성 산업이 포함됐다.

도표 12. 글로벌 우주항공 분야의 G2

순위	미국	중국
연간 로켓발사	170회	92회
궤도 진입 위성수	1.2만개(그중 저궤도 위성 1만개)	1080개(그중 저궤도 위성 240개)
상업우주 시장 규모	3,800~4,000억 달러(점유율 78%~80%)	2.83조 위안(전년대비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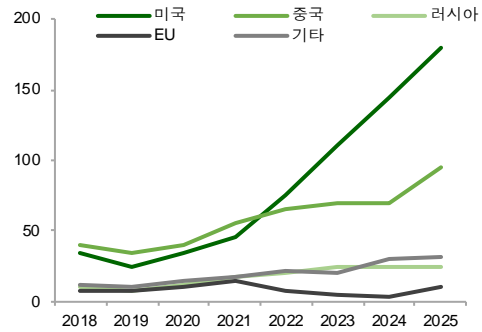
자료 : IB기관 보고서,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3. 글로벌 로켓발사 횟수 통계



자료 : Jonathan McDowell,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4. 글로벌 위성발사 수량 통계



자료 : Jonathan McDowell,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5. 5개년 계획에서 '6G/저궤도 위성' 첫 국가산업으로 지정

신품질생산력	14차5개년	15차5개년
미래산업	AI, 양자정보, 반도체, 생명건강, 뇌과학, 바이오, 공중과학, 심해	양자과학, 바이오제조, 수소에너지와 핵융합에너지 embodied AI[휴머노이드로봇], Brain-Computer Interface[BCI], 6G
신흥산업	차세대 IT, 바이오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신에너지자동차, 친환경, 민용항공, 해양장비	신에너지, 신소재, 우주항공, 저공경제

자료 : 전인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 중국 '저궤도 위성' 선점 본격화

미·중 우주항공
중단기 패권경쟁 분야
'저궤도 위성(LEO)'

미·중 우주항공 중단기 패권경쟁 분야는 '저궤도 위성(LEO, 고도 500~1200 km)' 선점이다. 원인은? 저궤도 위성은 6G(2030년 상용화 목표)와 우주 인터넷망 구축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6G 통신망 구축에 있어서는 저궤도 위성(위성통신)은 '필수불가결' 조건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통신 3사에 위성인터넷 사업 면허권을 발급했고, 2030년까지 위성통신 활성 사용자 1000만명 목표를 하달한 상황이다.

저궤도 위성수
약 6만개 정도로 제한

문제는 저궤도 위성은 궤도에 띄울 수 있는 위성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어느 국가가 선점하느냐가 중요하다.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 따르면 저궤도 위성수 약 6만개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미국이 이미 1만기(SpaceX 9,00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200기도 못 미친다.

중국 20만기
저궤도 위성 발사 신청

이와 같이 저궤도 위성수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확고한 'First mover(SpaceX IPO 등)'로서의 자리매김은 'Fast follower'로서의 중국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1월 11일 ITU(국제전기통신연합)는 중국이 12월 25일~31일 기간에 20.3만기의 '저궤도 위성' 발사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중국 '무선전혁신원'이 19만기를 신청했다. 이는 미국 Starlink 발사 신청수 보다 5배 많은 규모로 중국 정부의 6G 위성 통신 선점을 위한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2026년 중국
대규모 의무발사 증가

ITU 규정에 따라 신청후 7년까지는 최소 1기 위성을 올려야 하고, 그후 2년, 5년, 7년에 걸쳐서 10%, 50%, 100% 발사해야 한다. 즉 신청 후 14년 안에는 100% 발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2026년부터 대규모 의무발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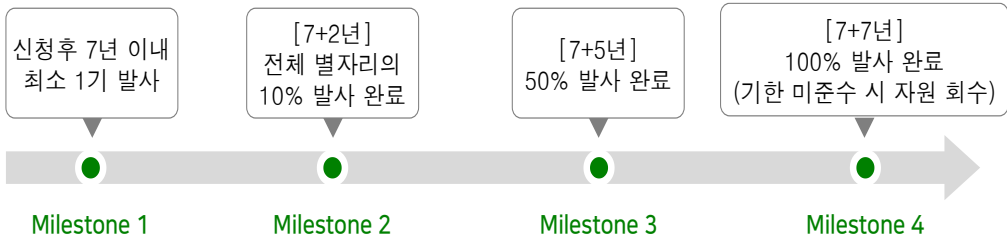
도표 16. 글로벌 '메가 별자리(Mega-Constellation)' 프로젝트

(단위:기)

구분	구분	신청한 저궤도 위성수	신청연도	2025년 기준 저궤도 위성수
미국	Starlink(스페이스X)	42,000	2016	9,000(76%)
	Kuiper(아마존)	32,000	2019	330
르완다	E-space	327,000	2021.9	-
중국	CTC-1/2 (무선전혁신원)	203,000	2025.12	-
	귀왕(GW)	12,992	2020	136
	첸판(G60)	15,000	2023	108
	홍구(LandSpace)	10,000	2024	-

자료 : 중국 언론기관 정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7.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저궤도 위성 발사 신청 후 프로세스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재사용 로켓'
성공 여부 중요

이번 중국 저궤도 위성 19만기 발사 신청을 한 주인공인 '무선전혁신원'은 2025년 12월 설립된 국유자본 주도의 공동출자 연구기관이다. 설립하자마자 대규모 발사 신청을 했다는 의미는 중국 정부의 정책 의도가 크다. 하지만 중국이 19만기 발사 신청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중국내에서도 의문이다. 핵심은 '재사용 로켓'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도표 18. 중국 4대 '메가 별자리(Mega-Constellation)' 프로젝트

기업명	상해원신위성과학기술 上海垣信卫星科技有限公司 (SSST)	중국위성네트워크그룹 中国卫星网络集团 (中国星网 CSNG)	란젠홍칭 上海蓝箭鸿擎科技 (LandSpace)	무선전혁신원 (无线电创新院)
프로젝트 명칭	천판(千帆: 천개의 돛, G60)	귀왕(國網, GW)	홍구(鴻鵠)-3	CTC-1, CTC-2
설립일	2018년	2021년	2017년	2025.12
주주	지방정부(상해)	중앙정부	민간기업	중앙정부+민간기업
	상해시정부(국유기업) 上海联和投资有限公司(상해 시 국자위 100% 출자한 국 유투자기업)42.57%	중국 국무원(중앙기업) 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 员会	란젠홍칭(LandSpace) 31% (실제적으로 67%)	국가무선전력감독센터 (SRTC), 하북응안신구관리 위원회, 중국위성 등 7개 기관
위성목표	1.5만기(2030년)	1.3만기(2035년)	1만기	19만기

자료 : 중국 언론사 내용 정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3)저궤도 위성 발사의 핵심은 '재사용 로켓'-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

중국 상업우주 약점은 '재사용 로켓' 부재

중국 상업우주의 가장 큰 약점은 대형운반능력과 재사용 로켓의 부재이다. 사실상 미국 SpaceX가 성공한 가장 큰 핵심도 저비용 발사체 제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즉 SpaceX는 '팰컨9', 재사용 로켓을 통해 우주 탐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했다. 그리고 SpaceX는 Starlink(저궤도 위성군을 활용한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6G 핵심 인프라를 선점하고 있다.

중국 '재사용 로켓' 기술개발 시급

중국이 대규모의 저궤도 위성 발사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재사용 로켓' 기술 개발 업그레이드가 시급하다. 한번에 몇 개의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지, 몇 번 재사용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발사 비용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발사된 위성의 수명은 5년 정도이다 보니 실제 발사해야 하는 위성수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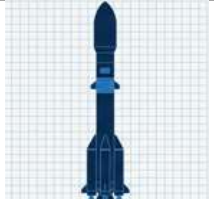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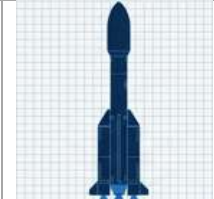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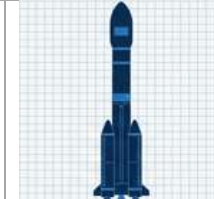
2026년 중국 '재사용 로켓' 발사 본격화

다행히 2026년은 중국 '재사용 로켓' 발사가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지난 2025년 12월 민영기업인 LandSpace가 가장 먼저 발사에 성공했으나, 회수에는 실패했다. 이어서 국영기업인 항천과기그룹(CASC)의 창정12A는 발사는 성공했으나, 회수 실패했다. 가장 최근(4월)에 실시한 민영기업인 Space Pioneer은 발사에도 성공하지 못했다. 특히 Space Pioneer은 팰컨9급 중대형 로켓으로 시장의 기대를 받았다. 현재 중국 '창정'과 미국 '팰컨' 발사 비용을 비교해보면 Kg당 620만원 vs 191만원이다. 만약 LandSpace 재사용 로켓이 회수에 성공(목표 80%)하면 '팰컨9'과 비용 비슷해진다.

중국 '재사용 로켓' 발사 성공까지 5년 정도 시간 필요

단, 중국 '재사용 로켓' 발사가 성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팰컨9'도 2010년 6월 4일 첫번째 발사 이후 회수에 성공하기까지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2015년 12월 21일 회수 성공).

도표 19. 2026년은 중국 '재사용 로켓' 발사 원년

				
구분	Land Space(蓝箭航天)	Space Pioneer(天兵科技)	CAS Space(中科宇航)	창정12A(중국 정부)
로켓명	주춧-3	텐룽-3	리젠 2호	창정12A
첫 비행일자	2025.12.3	2026.4	2026.3.30	2025.12.23
성공횟수	1(회수 실패)	0	1(회수실패)	1(회수 실패)
재사용가능여부	O(20회)	O	X	O
IPO제출일	2025.7.29	2025.10.17	2025.8.12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III. 중국판 SpaceX, 민영기업 LandSpace 주목

중국 LandSpace, IPO 및 재사용 로켓 발사 실시

중국판 SpaceX,
LandSpace
'홍구(鴻鵠)-3'

앞선 내용에서 중국 4대 '메가 별자리(Mega-Constellation)' 프로젝트 중 유일한 민영기업 주도의 프로젝트가 LandSpace의 '홍구(鴻鵠)-3'이다. SpaceX의 'Starlink'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LandSpace는 지난 2025년 12월 3일 '주첸-3'로 중국 최초의 재사용 로켓 시험 비행을 시도했다. 2단은 궤도 진입에 성공했고, 1단 회수는 실패했다. 상반기에 회수시험 재개하고, 4분기에 첫 재사용 비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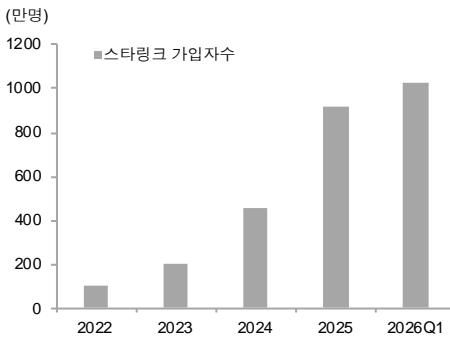
LandSpace
IPO 진행중

LandSpace는 지난 2025년 7월 IPO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12월 신청서는 접수된 상황이다. 단 현재 재무보고서를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아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2025년 상반기 약 6억 위안 적자). 아마도 중요한 부분은 LandSpace의 현금흐름이다. SpaceX가 주목받은 이유도 단순히 우주를 탐사하는 로켓발사가 아닌 'Starlink'를 통한 위성인터넷으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SpaceX 전체 매출의 64%이다.

LandSpace
위성인터넷 서비스
향후 10년 정도 시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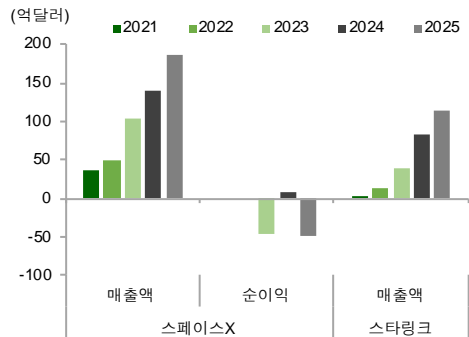
중국 LandSpace 가 미국 SpaceX 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SpaceX 의 Starlink 를 살펴보면 '팰컨 9' 재사용 로켓 발사가 성공하면서 2015년부터 개발이 시작됐다. 이후 정식 상용 서비스 전환은 2021년이다. 즉 중국 LandSpace 의 '홍구-3'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 주도의 대형 '메가 별자리' 프로젝트(첸판, 귀왕)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통합 가능성을 감안하면 시기는 빨라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도표 20. Starlink 가입자수



자료 : SpaceX 사업설명서/Quity Spac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1. Starlink, 2024년 흑자전환



자료 : SpaceX 사업설명서/Quity Spac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IV. 중국 '과창판50'지수 ETF 주목

(1) 중국 '과창판', AI/우주항공 IPO 본격화 - 수급 우려 제한적

중국 '과창판' 우주항공
IPO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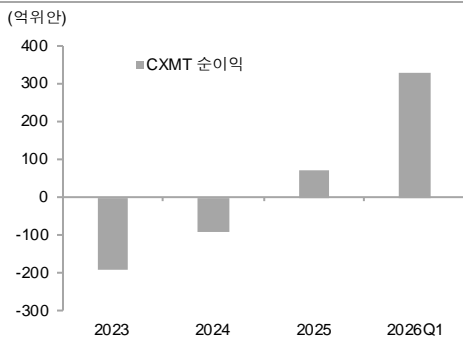
최근 중국 '과창판(科创板, STAR Market)'에 우주항공 기업 IPO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원인은 지난 12월 상해거래소가 과창판 지수에 우주항공 기업 IPO를 독려하기 위한 상장조건 제도를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저궤도 위성 로켓 발사에 성공한 기업인 LandSpace, CAS Space이다. LandSpace는 과창판 상장조건 제 5조에 따라서 중대형 재사용 로켓 발사 성공(2025년 12월) 조건에 부합하여 12월 31일 IPO 신청이 수리됐다. CAS Space는 제 5조 상장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제 2조에 따라서 재사용 가능한 액체연료 로켓 연구단계에 있고, 로켓 발사/성공 횟수 등 상업서비스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되어 지난 3월 31일 IPO 신청은 수리됐다.

*중국 '과창판(科创板, STAR Market)'지수는 상해거래소에 개설됐으며 (2019년), AI/반도체(시총에서 CPU/GPU/파운드리 64%) 비중이 가장 큼

중국 CXMT/YMTC/
유니트리 IPO 실시 예정
'과창판'수급우려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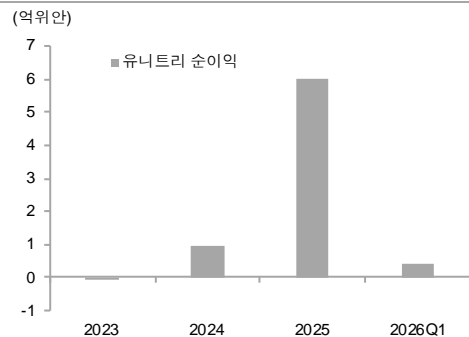
우주항공 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휴머노이드 로봇 대장주들의 IPO가 예정되어 있다. 중국 DRAM, NAND 양대 기업인 창신메모리(CXMT), 양쯔메모리(YMTC)와 휴머노이드 로봇 대표 주자인 유니트리이다. CXMT와 유니트리는 IPO 심사를 통과하여 4분기에 상장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과창판에 집중되어 있는 IPO가 과창판 지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과창판 전체 시총에서 IPO 예상 모집금액 비중은 미미하고, 증시 대기자금도 유효한 상황(신용거래 안정적, 개인투자자 자금 유입)임을 감안하면 수급 불균형 우려는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도표 22. CXMT 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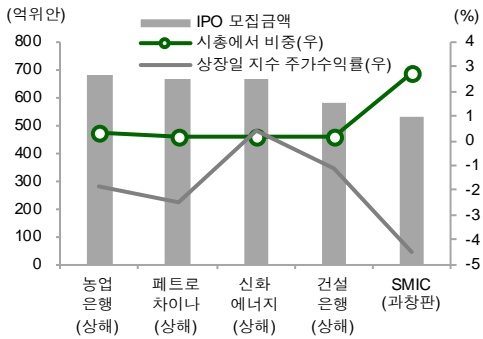
자료: CXMT,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3. 유니트리 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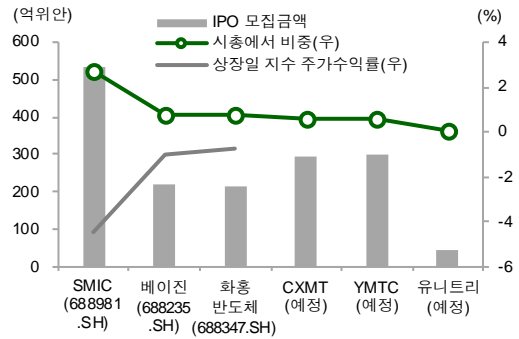
자료: 유니트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4. 중국 역대 IPO 중 모집금액 TOP 5



자료 : Wind,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5. 중국 과창판 역대 대형 IPO 및 예정 IPO 모집금액 비교



자료 : Wind,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 '과창판50'지수 ETF 주목

중국 우주항공 커넥트 및 '과창판50' 지수 추종 ETF 주목

중국 저궤도 위성 관련된 핵심기업들은 대부분 비상장 기업으로 IPO 대기중인 상황에서 직접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개별종목보다는 ETF 투자가 안정적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중국 우주항공 관련된 국내 ETF 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에 상장된(후·선강통 커넥트) ETF(Maxwealth CNI Commercial Satellite [159206.SZ]) 및 향후 중국 우주항공 IPO 가 집중될 예정인 '과창판 50'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표 26. 과창판50/우주항공/AI 중국 ETF

(단위:위안/홍콩달러/원)

구분	종목명	코드	상장일	AUM(억)	증가	3개월(%)	6개월(%)	YTD(%)	
한국	TIGER 차이나과창판STAR50	371160.KS	2020-12-16	1,438	15,105	22.4	31.4	32.0	
	KODEX 차이나과창판STAR50	414780.KS	2022-01-13	3,380	15,595	24.8	33.3	33.5	
	ACE 중국과창판STAR50	416090.KS		188	13,855	23.2	27.9	31.0	
중국 본토	우주항공 Maxwealth CNI Commercial Satellite	159206.SZ	2025-03-14	175.3	1.6	-10.7	21.4	-0.3	
	반도체	CPIC CSI 반도체(장비)	512480.SH	2019-06-12	173.5	2.1	35.1	46.2	41.3
		Guotai CES 반도체 칩	512760.SH	2019-06-12	96.5	1.1	30.5	40.1	35.9
		E Fund AI	159819.SZ	2020-09-23	215.1	1.9	23.7	24.7	22.6
	AI	ChinaAMC CSI AI	515070.SH	2019-12-24	91.5	2.4	23.6	24.7	23.0
		로봇	ChinaAMC CSI Robot	562500.SH	2021-12-29	186.5	1.1	11.3	16.9
	Tianhong CSI Robot		159770.SZ	2021-11-08	67.8	1.2	11.4	16.7	10.6
홍콩	AI/로봇 글로벌차이나로봇&AI	3191.HK	2020-08-07	26.6	87.7	41.3	53.0	48.0	
	반도체 글로벌차이나반도체	9807.HK	2020-08-07	8.6	7.8	0.8	8.0	3.4	
한국	시반도체	TIGER 차이나테크TOP10	0047A0.KS	2025-05-13	669.1	14,945	33.2	18.3	23.2
		KODEX 차이나테크TOP10	0065G0.KS	2025-06-17	695.7	9,920	-0.9	-11.2	-10.9
		Plus차이나테크 TOP10	0047N0.KS	2025-05-13	75.1	10,977	3.1	-5.8	-5.2
		TIMEFOLIO 차이나시 테크액티브	0043Y0.KS		90.2	22,630	51.1	61.2	57.8

주: 기준일=2026년 6월 10일

자료: Wind,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